



國民醫療와 宗教病院의 役割

醫協新報 柳 寅 旺

다른 대부분의 後進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도 西洋의 科學文明을 소개하는데, 先驅의 役割을 한 것이 예수敎로서 그 功의 至大함은 贊言을 필요하지 않는다.

특히 醫療敎育方法에 의한 西洋醫學의 傳來는 오늘날 韓國現代醫學의 嚆矢로서 또한 原動力으로서 그 功은 아무리 過少評價하려 해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絶對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舊韓末 壬午軍亂의 傷兵을 治療하여 信任을 얻게된 新敎西洋醫療敎師「알렌」이 1885년 濟衆院을 設置, 現代醫療의 문을 연후 同濟衆院은 세브란스病院으로 西洋醫學을 소개하는데 또한 西洋醫學發展에 가장 큰 役割을 담당해 왔다.

또한 가톨릭도 1859년경부터 施藥所를 設置, 敎療하다가 1937년 聖母病院으로 發展시켜 세브란스病院과 함께 西洋醫學 전파와 醫療敎育을 펴왔다.

이들 예수敎 病院들은 오늘날 基督教系統으로는 20여개 病院에 3천여 病床으로 또한 가톨릭系 烈病院은 60여개 病院에 우리나라 全體病院의 20%에 해당하는 施設을 保有하는등 우리나라 醫療施設의 거의 半에 가까운 量的 팽창을 하여 우리나라 國民醫療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西洋醫學 導入 90년이 지난 오늘 또한 解放 30년에 이른 오늘의 우리나라 國民醫療의 實態를 볼 때 이들 宗教病院들은「宗教病院」이기에 과거의 西洋醫學 導入·醫學發展에 대한 빛나는 功績속에서 舊態依然할 수 없는 국면에 도달했다고 하겠다.

오늘날 現代醫學은 高度의 發達로 인해 이에서 필연적으로 現代의 施設과 現代의 醫療器機를 갖추기 위해 막대한 投資를 要하게 되고 이의 維持

費 등으로 相對的인 醫療酬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가난하고 病든자는 더욱 醫療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對해 近代國家들은 가난한 환자들을 國家의 責任으로 간주하여 醫療問題를 個人문제에서 社會·國家的인 문제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民國樹立이래 계속돼온 自由放任의 醫療制度로 이를 더욱 惡化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社會保障의 醫療保險은 아직 試驗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國家가 責任진다는 敎療患者에 對한 診療는 겨우 대상을 30~40만명으로 査定했음에도 불구하고, 常識이하의 敎療費 査定으로 말뿐인 診療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結果 우리 國民의 病院利用率은 겨우 20%를 上廻하는 實情으로 결국 우리 나라의 醫療制度는, 우리나라의 醫療機關이 겨우 이 20%의 돈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存在하고 있는 制度와 機關이라고 말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과연 이러한 우리 나라의 現實에서 宗教病院들이 그것도 극히 소수가 아닌 우리나라 病院醫療施設의 約 半이나 점하고 있는 宗教病院들이 現狀態를 座視하고만 있으면 될까?

우선 宗教病院이 왜 宗教病院인가 하는 질문부터 답을 구해 본다. 물론 宗教(예수敎)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崇高한 精神을 醫療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設立된 病院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온 生涯를 통해 한결같이 가난한자, 버림받은자, 병든자, 감옥에 갇힌자등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며 十字架에 못박혔으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精神은 예수降臨을 믿고 모여든 原始初代敎會의 信者들에 의해

慈善活動으로 계승되었으며 그후 가난한자, 병든 자등에 대한 慈善과 奉仕활동은 곧 하느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義務요 使命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돼 왔고 또한 영원히 크리스찬들의 지킬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教會가 그 목적을 위해 설립한 宗教病院은 慈善診療가 그 첫째의 과업이라 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 設立目的을 위한 慈善診療를 그 첫째가는 과업으로 수행치 않는 宗教病院은 벌써 그 存在理由를 상실한 病院으로서 宗教病院일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世界 여러곳에서 宗教團體가 설립 운명하고 있는 많은 宗教病院들에 있어서 그 設立目的을 구현하기 위한 慈善診療의 혜택정도가 과연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인가 하는 것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지나치게 高度化·貴族化된 營利위주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코 제외되지는 않는것 같다. 우리 나라의 宗教病院들도 慈善診療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自意든 他意든 慈善診療를 하고 있다. 이른바 새마을 診療라 하여 官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을 무료로 診療하고 있으며 各教會와 聖堂에서 의뢰하는 極貧信者患者들을 無料로 診療하고 있다. 그리고 各種 外國慈善團體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極貧患者에 대하여 醫療社會事業的 慈善診療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宗教病院들도 無料慈善患者들만 診療할수 없게 일반 病院들이 겪는 어려움을 똑 같이 겪고 있다.

醫療費의 상승으로 인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無料로 診療할 수 있는 經濟的 여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慈善診療란 使命이외에 一般病院이 가지고 있는 患者의 診療, 醫學研究 및 教育, 疾病의 豫防등 使命을 무시할수가 없다. 그렇다고 現在의 宗教病院들의 慈善診療가 그 設立目的에 부합되게 충분한 정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異論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設立目的인 그리스도의 福音전파라는 목적을 위해 얼마나 공헌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現在 宗教病院들이 慈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患者들은 全診療患者들의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이 有料患者들로서 이들 有料患者들은 宗教病院이 아닌 기타 病院에서 받은 診療와 비교하여 아무런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宗教病院이 취급한 대부분의 患者가 一般病院이 취급한 患者들과 다름바 없다면 宗教病院으로서의 특별한 목적인 福音전파란 목적이 퇴색하고 만다.

宗教病院들은 가난하고 병든자들을 구하는 慈善診療라는 教會사명을 실현키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醫療를 통하여 예수의 정신을 전파하는 목적의 한 수단인 것이다.

때문에 宗教病院에 있어서 일반병원이 갖는 使命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이 될 경우는 目的의 本末이 顛倒된 상태로써 우리 나라의 宗教病院들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宗教病院이 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의 환자는 어떤 階層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草創期 宗教病院은 우리 나라가 西洋醫學의 不毛地였기 때문에 醫療宣敎이외에 西洋醫學의 전파발전이라는 부수적인 임무도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洋醫學이 도입된지 90년이 지났고 民國樹立된지도 30년이 된 현재 後者의 임무는 사라졌다고 해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돈있는 20%정도의 國民을 위해 宗教病院들이 存在한다면 이는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醫療에 있어서 宗教病院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國民醫療에 대한 責務 또한 큰 것이다.

우리 나라의 國民醫療은 우리 나라의 醫療가 돈 있는 20%의 患者를 주로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制度的으로 모순된 현실에 문제가 있다.

이는 물론 國家의 政策의 빈곤과 國家의 지원이 미약한 점을 가장 큰 첫째 원인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앓고 신음하면서도 돈이 없어 病院의 診療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우리 이웃

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國家의 責任으로만 돌리고 座視하고 있어야 할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宗教病院들은 韓國現代醫學의 先驅者라는 과거의 빛나는 功績위에서 다시 한번 國民醫療의 先驅者로서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歷史的 轉換點에 도달했다고 하겠다.

韓國의 醫學水準을 世界의 水準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臟器移植도 물론 좋다. 그리고 부족한 病床을 늘리기 위해 現代式 高級病院을 짓는 것도 좋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臟器移植을 하는 高度의 醫術도 아니요, TV가 장치된 高級의 病室도 아니라, 돈 없는 80% 國民들의 患者들에게 어떻게 최소한의 醫療惠澤을 주느냐 하는 문제다.

가난한 患者를 구하고 醫療惠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宗教病院은 더욱 그러한 것이다.

현재 몇몇 宗教病院에서 地域住民患者 診療와 疾病豫防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地域社會 醫療事業 정도로는 너무 미온적이다.

우리나라 現代醫學을 도입하고 發展시켜 왔고 또한 오늘날 80여 病院에 우리나라 醫療施設의 거의 반에 가까운 시설을 保有하고 있는 宗教病院은 빛나는 과거의 공적에 스스로 취해 現在에 만족하는 安逸을 즐길 때가 아니다.

주님이 부여한 使命을 완수하기 위해 地域社會 주민의 保健醫療 문제해결에 과감히 뛰어들어 또 다시 빛나는 醫療史를 창조하는 선봉에 서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 첫째 宗教病院이 都市에 위치하든 農村에 위치하든 그 地域社會가 요구하는 醫療를 해결하는데 솔선해야 한다. 특히 돈없고 病든 患者들을 구하는 것을 첫째로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두째로 地域社會에 하나님의 福音을 전하는 기관으로서의 役割을 다해야 한다. 宗教病院은 어떤면에서는 教會보다 宣教에 더욱 效果的인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宗教病院은 단순히 患者를 診療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醫療를 통하여 宣教를 하는데서 일반 병원과 다른 특성이 있고 또한 그것이 본래의 목적인 것이다.

다음 셋째로 이렇게 함으로써 地域社會醫療界의 구심점이 돼야 하고 地域社會醫學 및 교육훈련의 중심이 돼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宗教病院들은 自身의 現在를 사실그대로 再評價하고 設立目的에 비추어 自身의 使命이 무엇이라는 것을 再確認하는데서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慈善이 慈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僞善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不名譽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醫學史에 빛날 醫聖>

갈렌

屍體解剖 통해 科學的으로 發展시켜

— 그의 著書는 16世紀까지 教科書로 —

宗教上の 理由로 못하게 했던 屍體解剖를 함으로써 「히포크라테스」의 醫學에 科學的 要素를 넣어 發展시킨 사람이 바로 이 위대한 갈렌이다.

그는 히랍의 「페르가모스」에서 (129~200 AD) 아버지 「니콘」과 나이 어린 後事 사이에서 태어나서 후에 로마에서 活動하였다. 아버지 「니콘」은 훌륭한 學者였으나 어머니는 性質이 괴팍한 女子였다. 이런 兩親 사이에 태어난 갈렌은 아버지의 性質을 그대로 물려받

았으며 그것이 그를 偉大하게 한 要因이 기도했다. 그는 그 괴팍한 性質 때문에 한 선생에게 공부를 못하고 이 선생 저 선생을 찾아 공부했고 醫學에만 熱中하지 못하고 數學, 論理學 등 名部門에 손대었고 이를 基礎로 벌써 20세에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그의 저서는 16세기까지의 학교의 標準 教科書로 사용되었다. 「히포크라테스」와 그에게 充實 했던 「갈렌」에 의해 古代醫學은 그 빛을 발했으나 그후로는 政治, 社會, 宗教 등의 방해로 醫學은 침체, 제자리 걸음을 오랫동안 되풀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